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역사의 길에는 여러 갈래가 있다. 역사의 길은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수난의 길도 있고, 극복의 길도 있고, 희망의 길도 있다. 이 길 위에 수 놓았던 선현들의 영혼의 울림 같은 시대의 종소리를 되새겨 보는 것도 오늘날을 열어 가는데 귀중한 교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역사를 오래된 미래라고 하지 않는다.

원효의 아들 설총이 지은 화왕계(花王戒)는 신라가 삼국통일을 한 뒤 헤이해져 가는 왕실을 비롯한 사회 분위기를 바로잡기 위해 신문왕(신라 31대 재위 681~692)에게 지어 바친 유교의 교훈서이다.

그 속에는 왕을 모란꽃에 비유하여 장미꽃의 화려한 유혹에 현혹되는 임금에게 풍

시대정신과 선현들의 어록

요로운 때일수록 떠돌도 아껴야 하고, 지도자는 진실과 허구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할미꽃의 진언으로 신문왕을 각성케 했다는 이야기다.

한편 지배층의 부패가 극심해서 민생이 도탄에 빠져가는 고려 말에 가정 이곡(1238~1351)이 지은 차마설(借馬說)을 통해서 시대를 바로잡기 위한 지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돈이 없어 말을 빌려달 때, 낱센 말을 빌렸을 때는 낙상의 위험이 크고, 아린 말을 빌렸을 때는 넘어질까 조심하여 낱말은 곁에서 건너고 비탈길도 조심하여 오히려 낙상의 위험이 적다는 이야기다.

이들처럼 잘나갈 때 조심하라는 것이다. 덧붙여 모든 것은 다 빌린 것으로, 세상 떠날 때 가져갈 것이 없는데 제 것인양 착각하고 집착하여 화를 자초한다는 뜻이다.

우리 역사에서 민족문화의 토대를 이룬 세종대왕(조선왕조 4대, 재위기간 1418~1450)의 따뜻한 정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그 중에 세종대왕이 즐겨 썼던 생생지락(生生之樂)이라는 말이 있다. 나라는 백성으로 근본을 삼고, 백성은 먹음 것으로 하늘을 삼는다는 이야기다.

지도자가 성심으로 이끌면 백성들은 부지

런히 근본에 힘써 종사하여 그 생업을 즐겨 위한다는 것으로, 세종대왕의 나라사랑, 인간사상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이러한 따뜻한 마음이 노비에게 부부합산 160일의 출산휴가를 주고, 글을 몰라 어두운 세상을 사는 백성들을 위해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광명을 찾아준 찬란한 업적을 이루기도 하였다. 훈민정음은 사랑의 문자이고, 소통의 문자이고, 나눔의 문자로 세계인에게 자랑해야 할 지도자의 진정성이 담겨진 인류 최고의 문자이다.

또한 조선의 르네상스를 일으킨 군주로 평가받는 정조임금(조선왕조 22대, 재위기간 1776~1800)은 지식과 실천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라는 신하의 질문에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알면 행하는 것인데 행하지 않는 이유는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고기가 맛있는 줄 알면 먹지 않을 사람이 없고, 독초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 먹지 않을 것이라는 비유를 들어 명확한 지식이 바른 실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됨을 주장하였다.

한편 실학의 대표적인 인물 다산 정약용(1762~1836)은 강진의 유배지에서 아들에

게 보내는 편지에서 재물을 가장 오래 간직하는 방법을 적어 놓았다.

“아무리 귀하게 숨겨 놓아도 불이 나거나 도둑이 들면 허망하게 날아갈 것인데 가장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게 주면 그 고마운 마음을 영원히 간직할 것”이라고 하였다. 19세기 전반 관리들의 가렴주구로 시달리는 암울한 시대를 정화시키는 산소 같은 힘이 었다.

20세기 들어 일제의 잔악한 침략 앞에서 도산 안창호(1878~1888)는 새로운 희망과 각오로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우리에게 나라사랑의 주인정신을 잃지 않고 희망을 열어야 한다. 어린이는 방그레, 노인들은 방그레, 청년들은 방그레, 전국에 미소운동을 펼치자.”는 도산의 독립을 향한 열정적인 호소는 우리 민족의 미래를 밝히는 햇불이 되었다.

현대의 물질만능 시대, 경쟁의 시대, 분열과 대립의 시대에 우리 선현들이 남겨 놓은 맑은 영혼의 소리를 들으면서 새 생명이 싹트는 봄이 오는 소리와 함께 희망의 내일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社說

‘섬노예’ 사건, 목인 의혹부터 밝혀내야

신안군 외딴 섬 앞전에서 40대 장애인 인들이 수년간 노예처럼 혹사당하다 극적으로 구출된 사건과 관련, 전남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섬지역에 장애인 인권 침해사태가 해마다 빈발하고 있는데도 반박 단속 등 뽕질식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 장애인인권센터등 5개 장애인 단체는 최근 회견을 열고, ‘섬 노예’ 인권침해에 대한 신안 군수 사과와 제발 방지 종합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다. 우리리는 이들의 목소리에 적극 지지를 보내며, 경찰과 신안군의 실질적인 해결 의지를 촉구한다.

지난달 신안군 신의면 앞전에서 발생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은 당국의 책상머리 미봉책에 따라 빚어진 것으로, 차제에 근본적인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재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신안군의 경우 지난 2006년 한 섬에서 마을이장에게 10년 동안 노예처럼 강

제노동을 당한 30대 지적 장애인 사제가 언론에 공개된 뒤 ‘공개 사과’와 함께 제발 방안을 약속했지만 섬 노예 사건은 해마다 빈발하고 있다. 뒤늦게 경찰과 신안군, 고용노동청 등이 나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등 부상을 떨고 있지만 이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사실 섬 노예 문제는 탈출하기 힘든 공간의 폐쇄성과 인척관계로 연결된 섬 주민들의 목인 등으로 단속이 쉽지 않다. 때문에 번복만 올리는 단속으로는 근절시킬 수 없는 것이다. 경찰과 신안군이 단속방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당국은 무엇보다 육지와 섬간의 은밀한 커넥션을 발본색원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무허가 직업소개소부터 철저히 단속해 인력을 공급받는 업자들과의 결탁을 깨야 한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감찰을 통해 경찰과 공무원 등의 목인 카르텔 의혹도 철저히 파헤쳐야 할 것이다.

폭발사고 조사하다 또다시 폭발이라니

폭발사고 현장에서 조사를 벌이던 관계기관 직원 2명이 또다시 화약 폭발로 부상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폭발 사고가 발생했던 한화 여수사업장에서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김모 실장과 여수경찰서 과학수사팀 임모 경사가 조사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사고는 화약 시료를 채취하던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임 경사는 팔과 다리 등이 다쳤고, 김 실장은 부상 정도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폭발 이후 바닥에 남아 있던 미세한 분말 상태의 화약이 발에 밟히는 충격으로 폭발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사고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으면 총기와 화약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김 실장이 폭발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는지, 안전수칙을 과연 지켰는지 등 여러가지 의문점이 남는다.

한화 여수사업장은 화약을 제조하는

공장으로, 사고 위험성이 상존해 있는 곳이다. 지난 5일 화약 18.1kg이 폭발한 것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라는 점에서 불안감을 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유독 화학물질을 다루는 여수 산업단지는 화약고나 다름 없다. 지금까지 각종 폭발과 화재 등으로 20여 건의 사고가 터져 10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냈다. 이들 사고는 모두 회사의 안전불감증과 당국의 허술한 재난관리에서 비롯된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여수는 지금 유산호흡기를 유출사고로 수산물 판로가 막히고, 관광에 타격을 입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두차례나 폭발사고가 터져 이미 지마져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각 사업장들은 안전의식을 갖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며, 정부 역시 국가차원의 실질적인 재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항 여수가 더 이상 상처를 입어서는 안 된다.

의료칼럼

나도 혹시 고관절 충돌 증후군?



정우빈  
광주세우리병원장

고관절 서혜부의 통증을 동반한 40대 중반의 남자 환자가 5년 동안 여러 치료만 받다가 필자를 찾아 온 적이 있었다. 척추 질환 전문 병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자기 공명 영상에서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물리 치료 열심히 해보세요”라고 해서, 5년 동안이나 치료했는데 통증은 잘 안 나왔다. 주로 계단을 올라갈 때

삼해지고, 쉬고 있을 때는 별 증상이 없었다. 신체 검사 및 정밀 검사상 ‘양측 고관절 비구순 파열’로 진단을 받고, 관절 내시경 치료를 시행한 뒤, 증상이 말끔히 사라져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갔다.

이렇듯 대퇴골과 비구가 충돌해 고관절의 비구순이 파열되는 질환을 ‘고관절 충돌 증후군’이라고 한다. 대개는 고관절 서혜부가 ‘삐근하거나, 불편한 정도’로 지나가기도 하지만, ‘갈로 예는 듯’하거나, ‘움직일 때마다 걸리직’ 거리는 증상을 호소하기도 한다.

대개는 중년의 남녀에서 퇴행성 변화로 잘 발생하지만 골프, 태권도, 스포츠 댄스, 발레 등의 고관절을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젊은 성인들도 급성으로 파열되기도 한다. 전문 의료진에 의한 신체 검사를 정확히 받고, 단순 방사선 사진을 찍어보는 것이 중요하며, 질환이 의심될 경우 조영제를 사용한

고관절 자기 공명 영상 검사를 시행하는 것 과 골의 형태를 보기 위한 전산화 단층 촬영을 시행하는 것이 진단에 도움이 된다.

고관절 충돌 증후군을 방지하는 경우 고관절의 충돌을 유발하는 골의 구조적인 이상 때문에 조기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고관절 충돌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고관절 범위 운동을 지양하고, 관절을 충분히 쉬어 주며, 고관절 주변 근육 강화 운동을 충분히 시행해 주는 것이 좋다. 또한 염증 반응이 생긴 경우 적절한 약물을 복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럼 고관절 충돌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정확한 진단을 받았다면, 진통·소염제를 사용한

약물 치료 및 안정을 취하며 과도한 관절 운동을 시행하지 않아야 하며, 증상이 소실되는 지를 보고, 물리 치료 및 재활 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다.

일차적인 보존적 치료를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의 호전이 없다면, 수술적 치료까지 고려해 볼 수 있다. 수술은 절개 부위를 최소화하는 관절 내시경을 사용해 시행하며 퇴행성 변화가 심한 경우에는 절제를, 파열이 오래되지 않아 봉합이 가능한 경우에는 봉합을 시행해 준다. 또한, 비구와 대퇴골간의 충돌에 의해 증식된 골 조직도 증상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제거해 준다.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질환이기에 앞서 언급된 환자처럼 오진이 되거나 잘못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기에 서혜부 통증이 있다면 한번쯤 고관절 충돌 증후군에 대한 의문을 가져볼 일이다.

기고

지역개발의 대안을 생각하다



이상면  
광주대학교 교수

지금까지 추진돼온 지역개발 사업은 외부 지향적 개발방식이었고 정부가 주도하는 하드웨어 중심이었다. 외부지향적 방식에 의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외부자본, 즉 기업이나 산업단지 등 개발부자를 지역에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래서 지난 50년 동안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했지만, 돈이 외부에서 들어와 다시 인근 도시로 유출되는 외부지향적 개발방식에 의해 농촌지역을 도시경계에 종속시키는 경제구조가 만들어졌고, 더욱이 이러한 개발방

식이 주민을 외면한 채 관 주도로 이루어지면서 주민들도 외지로 빠져나갔다.

이제는 눈을 지역내부에 돌려야 할 때가 됐다. 외부지향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역 주민을 잘 살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주민 자활의지를 기반으로 내부 자립구조를 제고시키는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자원의 활용과 지역 과제 해결을 지향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지역개발의 대안이다.

아직까지 외부지향, 관 주도 지역개발 방식만 고집한다면 적자생존과 효율만을 따지는 시장경제논리는 작은 농어촌마을의 소멸을 더욱 가속시킬 것이다. 특히, 도시민의 소비 눈높이에 특히 뒤떨어진 우리 지역은 더욱 황폐화될 수 있고 우리 마을 교유의 가치와 전통문화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국가경제가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뤄야 자립, 안정기간이 구축되듯이 지역경제도 내부시장을 육성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본질이 바뀌고 있다.

첫째, 지역발전은 정부 주도의 하드웨어적인 대형투자 방식에서 지역주민 중심 즉 지역사회가 문제의 대상이자 동시에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진화하고 있다. 지역에 잠자고 있던 노동력, 전통, 특산물, 자연, 기술 등의 자원을 활용해 비즈니스를 하면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둘째, 지역활성화를 위해 일반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거나 외부자본을 유치하기보다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 지역사회 스스로가 자본주의 질서 안에서 기업 활동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다.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즈니스 원리를 도입하고 창출된 수익을 지역으로 환원하는 지역순환 경제활동이다. 그리고 지역에서 벌어들인 돈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역의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다양하게, 다층적으로 많이 만들어져 스스로 제품을 생산하면서 다른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고객이 되어야 한다. 즉 다양한 지역공동체 비즈니스가 여러 러지고 연대하여 지역내부의 시장을 만든다. ‘다양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설립 → 지역의 부가가치 증가 → 소득증가 → 인구증가 → 지역활동의 증가 → 일자리 창출 → 인구유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도시민도 이러한 지역에 유입된다. 도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아무리 농촌을 개조해도 도시의 경쟁력을 따라갈 수 없다. 농촌에서도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활발하게 일도 하고, 자연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도시민들이 그 지역에 살고 싶은 매력을 느끼게 하는 비결이다. 베이비부머들이 지역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들을 맞이하기 위해서라도 관 주도 산업기능별 개발계획으로부터 주민 편의 중심 융합형 커뮤니티로 재구축되어야 한다.

공간 좁아 잦은 주차 사고... 주차면 더 넓게 만들자

어느 승용차전 간에 옆구리 문짝을 보면 온전한 게 한 대도 없다. 그 이유는 주차해 있는 상태에서 옆에 있던 차가 문을 열면서 실수로 그 문짝 모서리로 차의 문을 콕 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내에 나가보면 문짝이 성한 차가 거의 없고 여기저기 콧보처럼 콧구멍처럼 있어서 보기에도 안 좋다.

이는 그만큼 우리 주변에 차가 많은 까닭이기도 하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갓 옆 머리카’가 있다. 이는 머리에 갓을 얹은 것이 아니고 갓이 옆에 얹어져서 보였다는 머리 모양을 말한다. 갓이 옆에 얹어져서 보였다는

말로 쓰는 말로는 ‘갓 옆 머리카’라는 게 있다. 얇은 갓이 한 장 겨우 들어갈 정도로 아주 좁은 공간에 차를 세우는 것을 말하거나 그렇게 주차해 놓은 상태를 의미한다. 어떻게 주차를 하고 어떻게 차에서 내렸는지 쉽게 상상이 가지 않는다.

그러고 보면 참 이상하다. 우리나라에는 이상하게 큰 차 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차장은 이상하게도 소형차나 경차용이다. 그래서 차를 세우는 것도 힘들지만 내릴 때 옆 차를 찌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주차해 놓고는 옆 차에 찌히지 않을까 노심

조사한다. 운전자끼리 티격태격하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고 옆구리 밑정한 차도 드물다.

최근에 다른 아파트보다 ‘10% 더 넓은 주차장’을 광고하는 아파트가 있다. 광고 화면이라서일까? 주차장이 매우 널찍해 보였다. 양옆에 다른 차가 주차돼 있지만 내리고 타기 넉넉해 보여서 부럽기까지 했다. 차와 차 사이에 유모차도 한 대 서 있다.

이런 주차장이 특별한 곳으로 강조될 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주차장의 넓이 시설이 이렇게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주차도 쉽고 콧 찌힘에 따른 차의 골보화도 막고, 차수리비도 줄고 이듯 간에 발생할 분쟁도 줄일 수 있을 걸로 본다.

▲문둥기·광주시 광산구 사호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無 等 鼓

‘변호인’에서는 약자를 위해 변론하는 ‘사람 냄새’가 풍긴다.

100만 관객을 훌쩍 넘긴 영화 ‘변호인’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 영화에서 송우석은 돈 잘 버는 ‘변호사’에서 인권에 눈 뜬 ‘변호인’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보여주지 않던가.

영화에는 또 매우 인상적인 조언으로 기자 한 명이 등장한다. 그의 실제 모델은 현재 문화계릴라로서 걸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연극연출가 이윤택(62) 씨이다. 시인이기도 했던 이 씨는 1979년 7월 부산일보사 편집부에 입사해 잠시 기자 생활을 했다.

그와는 당시 ‘병아리 기자’ 시절 언론재단에서 마련한 ‘연론인 교육’에 함께 참여한 인연이 있는지라 영화에 나온 그를 보며 감회가 새로웠다. 생각해 보면 참 기자 해묵기 어려운 시절이었다.

하지만 지금이라고 해서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다. 영화를 영화로 보지 못한 채 허구와 실제의 차이나 거론하며 편 가르기를 해대는 보수언론의 기자들이 널려 있으니 어찌 마음이 편하겠는가.

/이희재 논설교론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淳榮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경영지원본부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1부 2200-66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미케팅국 227-9600
정 치 부 2200-612	문 화 2부 2200-6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여문예체부 2200-621	(F A X 227-9500) <F A X 02-773-9331>	프로젝트 팀 2200-555
<대표 FAX 2200-616>	체 육 부 2200-697	서 울 지 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사 회 부 2200-616	사 진 부 2200-693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